

전남 중부권

강진군 “축산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올해부터 등록제 시행...단속 앞서 홍보·계도

강진군이 올해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앞서 홍보에 나섰다.

강진군은 다음달부터 미등록이나 GPS(위성항법장치) 미작동, 운전자 교육 미이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해달라 일정 규모 이상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진군은 7일 “미등록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 차량등록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5차례 정도 가축시장 방문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진 장남에 실시한 지도·단속에는 관계공무원 6명이 나서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차량등록스티커 미부착 차량이나 GPS 단말기 미장착 차량 등에 “축산차량 등록제 등록대상 차량”임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차량번호를 기록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이동장치 미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열 강진군 환경축산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차량 소유자는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일 새벽 강진 장남에 가축시장을 방문한 강진군 환경축산과 직원들이 차량등록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조사하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사료 채취·방역·기계 등의 통신키가 부과되며 이 가운데 노·왕겨·퇴비 등은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사료 채취·방역·기계 등을 위해 300㎡ 이상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 단말기를 장착한 뒤 운행해야한다. GPS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한 달에 9900

원의 통신키가 부과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강진군에는 축산 관련 차량이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450대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새얼굴

“희망의 정남진 건설에 내조 역할”

윤승중 장흥군 부군수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 건설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윤승중(56) 장흥군 부군수는 “장흥이 자랑하는 천혜의 아름다움과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해 중남부권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내부 내조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조직의 안정과 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인 행정문화가 조성되도록 내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군수는 광주 출신으로 1982년 지방행정 7급 공채로 8년간 장흥군에서 근무하다 전남도로 전임돼 해양항만과장, F1대회 미디어홍보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흥=김홍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담양일반산단 조성 투자협약

현대엔코와...2015년까지 566억원 투입

담양군은 최근 현대엔코㈜와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담양일반산단 조성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담양일반산단사업지는 담양읍 삼만리에 들어선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인근 58만8000㎡ 부지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폐수처리시설, 녹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 5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식품 등 친환경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담양산단이 조성되면 현대엔코㈜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생산 업체 등이 대거 입주하는 등 자동차부품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7904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62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물류 이송이 쉽고, 광주과학기술원과 테크노파크와 가까워 산학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투자유치 전담팀을 두고 기업 유치 활동을 벌여 31개 기업에 4575억원을 투자유치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순창군 올 관광객 300만명 시대

코레일 열차 투어·숙박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

순창군이 올해 관광객 3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코레일 열차 투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7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레일 열차투어를 연 130차례 실시하기로 (주)대상과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비용 분담과 견학코스 개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지난해의 유익으로 개발한 순창의 걷기 좋은 길 7개 노선에 대한 관광안내판과 이정표,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부족한 숙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도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캠핑족을 유치하기 위해 144억원이 투입되는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구립 호정소 유원지 개발사업도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도 올해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새로운 볼거리 창출사업으로 추림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에 31억원,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에 5억원,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첫 삽을 들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신내면 구절초 테마공원 내 얼음썰매장이 10일 개장한다. 개장식은 11일 열리며 다음달 3일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얼음썰매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이다. <정읍시 제공>

군산시 야생염소 퇴치 나섰다

개체수 급증 피해 확산...섬지역 3곳 주민 대책위 구성

군산시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생태계 위해성 2급중으로 분류된 도서지역 야생염소 퇴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옥도면 관내 16개 유·무인도에 대해서는 7일부터 순회하며 야생염소 퇴치 작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퇴치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7일 군산시 옥도면에 따르면 이날 내로 방축도, 말도, 명도 등 유인도와 무인도인 횡정도를 찾아 200~300여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염소의 현황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3개 도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년 전부터 단체 및 개인의 무분별한 염소 방목지로 사용된 횡정도에

는 야생염소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그 수가 200여 마리로 늘었다. 이들 염소들이 희귀 자생란 등을 먹어치우면서 횡정도는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민둥섬’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방축도 등 유인도 역시 야생염소를 50~60마리씩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옥도면 관계자는 “야생염소가 먹이를 따라 갯벌로 이동하거나 해염처 유·무인도를 떠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처놓는 그물도 소용없고 번식력도 강해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방축도 등 3개 도서 주민들은 총회를 거쳐 조만간 포획 작업을 시작하고, 섬 특성상 쉽지 않은 포획작업이

새해 새 설계

김양수 장성군수

“나노산단·물류센터 본격화”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 활력이 가득하고 매력이 넘치는 더 좋은 장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7일 “지난 2년 반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장성을 만들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3대 프로젝트 본격 추진 ▲농업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장수환경 조성 ▲교육관광 진흥 및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훈훈한 복지 사회 조성 ▲차세대 인재 육성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 6대 군정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준비 작업을 마친 나노산단사업지와 농업장성물류센터, 장성호 수변 개발 등 3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0여만㎡에 달하는 나노산단사업지는 이달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10만㎡ 규모의 농업장성물류센터도 올 상반기 중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완료할 전망이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오는 4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마칠 예정이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전력을 다해 장성을 호남 농산물 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광주권 인근 4개 시군 연합 직거래장터를 통해 대



상반기중 시가지 정비

청림문화 체험 늘리고

새 관광수요 창출 주력

LED로 바꾸고, 주민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삼계면·북이면에 이어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서삼면·황룡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먼 단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도서관 건립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림 문화 체험교육을 확대해 군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축령산 숲 체험교육관과 피톤치드 체험랜드 등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청백리의 고장, 의병의 고장에 걸맞은 ‘장성을 빛낸 인물’ 책자 발간과 유럽회관 건립, 의병활동 재조명도 하게 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경로당 반찬 값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목욕비를 월 2회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이 같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3067억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8%를 증액했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재정도 대폭 늘어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일고 있다”며 “장성군민의 공동 목표인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 직판행사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특산물인 사과와 귤의 명품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간디산업 지속 육성 등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가간판 정비 등 장성을 시가지 정비와 실내수영장 건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성역 앞 교차로 정비를 올해 상반기 중 끝내는 것은 물론 전선 지중화,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하며 장성을 시가지가 크게 변모할 것이라는 게 김 군수의 말이다. 황룡면 시가지 상가간판을

/중부취재본부=김홍기기자 yongho

전 북

단신

김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1일 준공식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지난해부터 2년간 10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김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이 11일 열린다고 밝혔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농민이 공동가공장비를 이용,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 품질향상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한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종합회관 내 1층에 495㎡ 규모로 들어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쌀과자, 시리얼, 조청 등의 쌀가공 기기 24종을 갖추고 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27건 적발

군산해양경찰은 7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일까지 연말연시 해상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불법어구 적제 등 불법어업 9건(10명) ▲선급금 사기 8건(8명) ▲선박 절취·무단

사용 3건(6명) ▲폭행 4건(4명) 등이다. 해경은 경찰 200여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육·해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다. 군산해경 강화한 형사계장은 “고질적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올 예산 역대 최대 5416억원 편성

정읍시가 올해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41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5333억원보다 83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읍시는 7일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구 건설사업(10억원), 전북대 산학협력지원센터 건립사업(20억원), 내장주 주변

자연학습시설 조성사업(15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2년 연속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해 30여 차례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의 역사와 추진 과정을 담은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이 건립될 전망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립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

립’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비 2억원이 올 정부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간척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 전시하는 기능을 담당할 박물관 공사는 총 1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김승환 전북교육감 “농산어촌 교육 환경 개선 역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올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혁신학교를 100곳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7일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는 강한 전북교육의 시발점으로 그 변화의 시작은 농산어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아이에게 웃음을 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

육의 핵심”이라면서 “어떤 학생도 배움으로부터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당선인이 공약대로 교육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믿으며, 교육청에서도 새 정부와 정책적인 협력을 잘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백제시대 수리시설 김제 벽골제에 얼음썰매장

백제시대에 축조된 수리시설로 지정된 순창 무대인 김제시 부령면 벽골제(사적 111호)에 얼음썰매장이 마련됐다.

희망김제민원봉사대는 추위가 절정인 20일까지 벽골제에 썰매장을 무

료 운영한다.

벽골제는 3300㎡에 물을 채워 언 얼음썰매장에서는 썰매타기와 팽이 치기를 즐길 수 있다. 썰매장 한쪽에는 목공예, 유품공예 체험장도 마련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